

미래 건설업계의 개척자 바로 설비인입니다

- 설비분야는 건설업 신 가치창출의 핵심분야이다.

진형재 / (주)한라 해외건축기술부 설비담당 대리(hyoungjae.jin@halla.com)

건설업계가 폭풍전야처럼 느껴진다. 고요한 것 같으면서도 앞으로 다가올 미래에 대한 대비를 위해 뭔가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다가올 미래의 모습이 어떠한지 정확히 예상하기란 매우 어려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모습보다는 중구난방으로 부산한 모습처럼 느껴진다. 우리는 지금을 어떻게 살고 있는가? 사람이기에 그 형태와 모습이 어떠한지 열심히 살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는 과연 잘 살고 있는가? 잘 살기 위해 노력은 한다. 하지만 명확한 정답은 없다. 시간이 더 지난 후, 우리는 후대 사람에게 어떤 평가를 받을만한 노력을 하며 살고 있는 것일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삶의 터전인 건설업을 후대에는 어떻게 영위하며 살아가게 될까. 건설업에 몸담고 있는 사람이라면 한번쯤 진지하게 생각해 봐야 할 것 같다. 그리고 그런 고민은 혼자보다 함께 하는 것이 보다 더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다.

서론

지난 50년간 건설업은 대한민국의 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했음을 부정할 사람은 그 누구도 없다.

해외 수출의 역군으로서 과거부터 현재까지 해외 건설 수지의 흑자를 달성하였고, 다양한 기술을 융복합시킨 인텔리전트 빌딩과 살기 좋은 집을 만들면서 국가 기반 수준을 향상시켜 왔다. 눈부신 발전을 이루었던 건설업계가 근래에 들어 조금은 후퇴해 가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사회적 흐름이 바뀌면서 건설업에 종사하는 남자는 신랑감으로 최하 점수를 받는다는 이야기가 농담 반 진담 반 나온다. 안타깝지만, 현실이다. 그렇다면 필자는 궁금하다. 과연 건설업이 사양산업인가? 그래서 미래에는 사라질 산업인가? 이 질문에 대해 '그렇다'라고 답할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왜 어려워진 건설경기에 직면하여 있을까? 그 이유가 단순히 국제경제의 성장 둔화에 따른 경기 침체가 이유인 것일까? 하나하나 짚어가며 따져볼 필요가 있어 보인다.

본론

국내 건설업의 성장률이 하향곡선을 그리기 시작한 데에 대한 가장 큰 원인으로는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이로 인해 부동



산 경기가 둔화되기 시작했고, 부동산 불패신화가 깨지기 시작하면서 이전에 몰랐던 리스크가 대두되었다. IMF 이후 지칠 줄 몰랐던 경제성장이 한풀 꺾인 것이다. 이는 국내 건설 경기에 직격탄이 되어 돌아온다.

해외 건설 시장으로의 진출이 점차적 둔화되기 시작한 것은 무엇보다도 중국이 가장 큰 원인일 것이다. 2000년대로 들어오면서 중국의 경제는 빠른 속도로 성장했으며, 기존 선진국들을 무서운 속도로 추격하고 있다. 자국 내 경제성장을 이룬 중국이 이 시점부터 해외로의 진출을 도모하기 시작한다. 1970~1980년대 국내 건설업계가 해외로 진출했을 때의 전략-중급 정도의 기술력과 값싼 노동력 등과 매우 흡사하다. 이러한 흐름으로 인하여 국내 건설업체들은 고등기술력을 바탕으로 한 고부가가치 분야로 타깃을 바꾸며 해외 시장을 공략해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황금알을 낳던 해외 건설 시장은 '잘못 뛰어 들면 엄청난 손실을 초래하는' 가시가 되어 돌아오고 있다.

많은 사람은 한목소리로 외친다. 향후 건설업 분야로의 투자는 정체되거나 감소할 것이라고. 당연한 소리다. 50년 전에는 지구촌 사회에서 부유한 국가가 미국과 서유럽의 일부 몇몇 국가들뿐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중국을 비롯하여 다수의 중동, 동남아시아, 남아메리카 지역 국가들까지 높은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이 너무나도 많아졌다. 달이나 화성에 식민지를 건설하지 않는 한, 지구 내에서의 개발과 발전은 적정 수준보다 많이 이뤄진 것이다. 포화 상태에 가까워지는 시장에 건설업체의 개체 수가 과잉공급으로 변하기 시작한 것이다.

건설산업이 어려워지고 있다. 그러면 어렵고 힘들니까 포기할 것인가? 아니다. 어려워진 환경이지만, 이를 이겨내야 새로운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스마트한 IT 기기들도, 최첨단 우주항공 기기들도 우리 삶의 터전이 있어야 그 존재의 가치가 있는 것이다. 우리 건설인이 바로 미래 삶의 터전

을 새롭게 만들어 갈 개척자이다. 개척자인 우리가 열정을 가지고 도전해서 이뤄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앞으로의 건설시장 개척을 위한, 대한민국 건설산업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필요 요소는 무엇이 있을까? 필자는 위생과 에너지라고 감히 말하고 싶다.

먼저 위생부분의 기술은 인류 삶의 질 향상과 삶의 수준 유지를 위해 필수불가결의 요소이다. 과거 역사를 돌이켜 보면 유럽의 흑사병 재앙 역시 위생 개념의 부족으로 인하여 발생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도 아프리카 지역을 비롯한 많은 지역은 여전히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어려운 삶을 영위하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다. 이들을 원조하고 개발하면서 가장 기본적인 투입 요소가 바로 위생분야일 것이며, 이러한 지역을 개발하는 것은 지구상 마지막 건설자원이 될 것이다. 선진국 또한 인류의 삶 영위에 필요한 기본 요소인 위생부분을 등한시할 수 없을 것이다. 즉, 꾸준히 수요가 발생하는 분야임을 뜻한다. 그만큼 위생분야는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기본적인 기술요소인 것이다.

다음으로 에너지 분야의 기술은 지구의 생명과 연결된 현대인의 과제로서, 건설산업 또한 매우 밀접하게 연결된 기술요소이다. 지금까지의 에너지 기술은 에너지를 어떻게, 얼마나 많이 만들어 낼 것인가의 과제였다면, 앞으로는 얼마나 지구환경친화적인 에너지인가를 고민하여야 하는 것이다. 인류 삶의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다양한 편의시설을 사용하게 되고, 이에 따라 많은 에너지를 소비하게 된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어서 사람을 위한 편의 시설 이용을 포기하기란 불가능에 가까울 것이다. 결국, 에너지를 생산하면서 환경을 파괴하지 않고, 에너지원의 효율적인 사용을 위해 손실을 최소화 하고 최대한 많이 저장하며, 에너지 소비에 따라 발생하는 부산물의 유해성이 제로에 가까워야 한다. 여기에 덧붙이자면 신재생에너지원처럼 에너지 생산을 위한 화석 자원이 필요없는 기술력과 에너

지 절약에 대한 근본적 마음가짐을 가진 문화가 함께 하면 더욱 효과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론

미래에서 온 사람이 아니라면, 미래예측을 완벽하게 할 수 있는 사람은 없다. 다만 얼마나 많은 준비를 하고, 유연하게 대처하는가에 따라서 그 경쟁력이 평가될 것이다. 그 철저한 준비를 위해서, 미래 건설을 그려보자.

먼저, 본문에서 언급한 위생과 에너지 부분을 아우르는 '환경 측면에서의 건설분야'가 있을 것이다. 환경 분야 건설기술의 첫 번째는 탄소배출권과 연계되어 에너지 절약기술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는 신재생에너지부와 저탄소 녹색건축 부문으로 예측할 수 있겠다. 태양광, 태양열, 풍력, 지열 등의 신재생에너지 기술은 건설기술의 Software로, Passive House, LEED 등의 저탄소 녹색건축물은 건설 기술의 Hardware로 에너지분야의 쌍두마차 역할을 하며 미래 발전 가능성을 확대해 나가고 있다.

환경 분야의 두 번째 건설 기술은 환경/Bio 플랜트 부문으로 볼 수 있겠다. 위생 개념을 바탕으로, 인류 삶의 영속성을 위해 필수적인 환경/Bio 부문은 담수화, 정수처리 및 하수처리 기술이 핵심이라고 할 수 있다. 환경/Bio 부문의 미래가치에 대해서는 누구나 공감하고 있는 만큼, 그 잠재력 또한 무궁무진할 것으로 보인다.

환경 측면의 건설 분야가 인류 삶의 영속 및 영위를 위한 기술이라면, 우리의 삶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생활 측면에서의 건설 분야' 또한 꼭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다. 건설이라는 Hardware에 IT라는 Software가 접목된 스마트홈 기술은 융합기술의 결정체가 될 전망이다. 이와 함께 주거, 비주거 구분 없이 삶의 터전에 대한 감성적 접근은 미래 건설 디

자인의 혁신을 불러올 것으로 보인다. 디자인 감성에 융합 기술이 더해진다면, 그 시너지효과는 미래 인류 삶의 변화에 결정적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해 온 분야, 그래서 관심의 우선순위 밖의 한 분야를 언급하고 싶다. 바로 '농업/축산 분야'이다. 고도의 기술발전을 이루며 최첨단 정보화 사회를 살고 있는 우리 현대인들은 대부분 먹고살 걱정을 하지는 않는다. 하지만 근래의 급격한 기후변화와 함께, 식량전쟁의 잠재성이 조금씩 언급되기 시작했다. 식량자원은 환경분야의 물 자원과 함께 미래전쟁의 중심 이슈가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이 분야의 기술적 우위를 점한다면, 그에 따른 미래가치는 IT 산업의 발전 그 이상의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예측할 수 있다.

미래의 다양성을 정확히 예측하기란 정말 어렵다. 하지만 우리는 그 다양성의 요소요소 내재된 잠재력은 무궁무진하다는 것을 안다. 2014년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 모두는 21세기의 개척자다. 다음 세대의 문화적, 물질적, 그리고 환경적 풍요로움을 물려줘야 하는 개척자인 것이다. 그리고 우리는 지금 건설 분야를 통하여 미래 개척을 시도하는 건설인이며, 그중에서도 미래 건설 가치창출의 핵심 분야를 담당하고 있는 설비인이다. 우리가 뛰어야 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건설업은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 장담할 수 있다. 물론 눈부신 성장을 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래서 경쟁이 더욱 심화되겠지만, 누군가는 그 경쟁에서 이기고 살아남아 다시금 발전할 수 있는 기틀을 만들어야 하지 않을까. 후대에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건설업을 물려줘야 하는 것이 지금 우리 설비인의 숙명이 아닐까. 대한민국이 '아시아 4룡'을 뛰어넘어 '글로벌 No.1 리더'가 되는 그날을 위해서. 다시 뛰자, 설비인이여. 